***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17일 일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17호

김정일총비서께 드리는 축하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조국의 륭성과 민족번영의 새 시대를 빛내이는 혁명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가장 뜻 깊은 2월의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범한 예지와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20세기를 주체의 사회주의승리의 세기로 빛내이시고 왕성한 정력과 끝 없는 열정에 넘치시여 새 세기의 희망찬 미래를 개척해 나가시는 길에서 탄생 60돐을 맞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있는것은 우리 인민이 받아 안은 더 없는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은 이 경사스러운 날에 즈음하여 우리 당 총비서이시며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다함 없는 경모와 열화 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만고의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 오르신것은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 놓은 민족의 대통운이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승리의 새 시대를 기약한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김정일동지의 60성상의 혁명력사는 수령과 그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위대한 계승의 력사이며 끊임 없는 창조와 비약으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신 탁월한 령도의 력사이며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참다운 헌신의 영광스러운 력사입니다.

반만년의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여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하였던 우리 인민은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령도자로 모시여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며 민족의 존엄을 세계에 높이 떨칠수 있게 되였습니다.

력사의 풍랑을 헤치며 승리적으로 전진해 온 조선혁명의 로정에는 사상과 령도의 거장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의 기념비들이 높이 솟아 빛나고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장 위대한 동지, 위대한 전우가 되시여 수령님과 함께 로선과 정책을 구상하시고 당, 국가, 군대, 인민을 령도하시여 주체혁명위업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창조하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발전풍부화하시고 사회주의승리의 진로를 밝혀 주는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들을 내놓으시여 새 시대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을 마련하여 주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굳건히 다지시고 온 나라를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우리 인민이 백두의 혁명정신을 순결하게 계승하여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 나갈수 있게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당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시여 우리 당을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전당이 령도자의 뜻으로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로 그 위력을 백배로 강화하여 주시였으며 로숙

2.16 특집 (2)

1 **김정일**총비서께 드리는 축하문
3 **김정일**장군님과 혁명의 성산 백두산
4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 백두산밀영지구에서 성대히 개막
4 2월의 명절을 경축하는 세계 진보적인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노작

5 이타르따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세기와 더불어

6 2장 3절 타도제국주의동맹

한국민족민주전선

8 6.15공동선언이행을 차단시킨 부시행정부의 죄악백서 (2)
9 날이 갈수록 규탄배격받는 부시망발
9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2월 15일

광고

14 PDF총서 ≪21세기 태양≫ 9. 통일의 구성

조선중앙통신

10 주체 91년 2월 15일

김일성종합대학방송강좌

11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고 생활하는 기풍과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사업기풍

아리랑뉴스

12 달아오른 반미 감정 전국 9개도시 동시 집회
13 부시방한 반대 서울지역 결의대회 열려
13 백기완 강연 –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노라≫
14 부시의 연두교서와 ≪악의 축≫
14 부시방한, 한. 미, 대조선정책 미봉에 그칠 것
14 이 총재 방미 관련 여야 ≪논평 전쟁≫

운동강좌

14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에 대하여(4)

조국통일3대헌장

15 연방국가창립방안(1)

21세기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60돐을 열렬히 축하드립니다

하고 세련된 혁명적당, 대중속에 깊이 뿌리 박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그 면모를 일신시키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사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여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고 전군이 최고사령관의 명령일하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주체의 령군체계를 확립하시여 군건설의 최성기를 마련하시였으며 그 어떤 침략자도 일격에 타승할수 있는 강위력한 군사력을 건설하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사랑과 충성, 믿음과 의리로 뭉친 화목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꾸리시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동지애의 새로운 력사를 펼치시였으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하여 혁명의 주체를 반석같이 다지시고 그 위력으로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해 나갈수 있게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탄생 경축보고회장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약과 전변이 일어 남으로써 이 땅에는 유구한 력사에서 일찌기 볼수 없었던 륭성번영의 시대가 펼쳐 졌습니다.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위인적풍모와 특출한 령도실력은 우리 혁명의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던 20세기 마지막년대에 이룩하신 전무후무한 혁명업적으로 하여 더욱 찬연히 빛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피눈물에 잠기고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과 련이은 자연재해로 형언할수 없는 고난이 들이닥친 최악의 역경에서 단신으로 위기를 막아 나서시여 나라와 민족을 다시한번 구원하시고 우리 조국을 필승불패의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천출위인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십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산주의운동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숭고한 충실성과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수령영생위업을 이룩하시여 조국땅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시였으며 조선에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는 적들에게 단호한 철추를 내리시고 인민들을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키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총대철학에 기초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완성된 사회주의정치방식인 선군정치를 창시하시고 선군혁명령도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며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시였으며 혁명적군인정신으로 ≪고난의 행군≫을 돌파하고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그처럼 정세가 복잡하고 어려울 때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고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하여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 나가도록 하신 선군혁명령도는 사회주의정치의 참다운 모범으로 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선군시대에 맞게 풀어 나가는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 우월성이 높이 발양되도록 하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이 내세워 주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혁명적인 방도를 제시하시고 이르는 곳마다에 세계적수준의 현대적인 공장들을 수많이 세워 주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끊임없이 현지지도를 이어 가시며 력사의 엄혹한 시련을 타개하시고 강성대국건설의 새 시대를 펼쳐 주신 불멸의 혁명실록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최대의 민족사적과제로 내세우시고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통일애국력량을 묶어 세워 조국통일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시였으며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대용단으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6. 15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하시여 온 겨레의 심장을 격동시키고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 놓으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우리 당과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비상히 높이시였으며 세계 자주위업승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시고 국제관계발전의 새 력사를 펼치시였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비상한 지략과 무비의 담력, 투철한 혁명적원칙성을 지니시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만대불후의 대업적을 쌓아 올리신 인류의 영재이시며 현 시대의 가장 로숙한 정치원로이시며 희세의 령장이십니다.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영광이 있고 존엄 높고 위력한 사회주의조선이 있다는것은 우리 인민이 절감하고 세계가 공인하는 위대한 현실입니다.

이 땅우에 망국의 비운이 드리웠던 비통한 처지에서 지난 20세기를 맞이하였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세계정치를 주도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사회주의보루를 굳건히 지키며 인류의 미래를 앞장에서 개척해 나가는 크나큰 긍지에 넘쳐 21세기를 맞이하고 주체조선의 세기로 빛내여 가고 있습니다.

새 세기를 향도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나가는것은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기 위한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가장 숭고하고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고수하며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전통적인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높이 들고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정치의 절대적인 신봉자, 관철자가 되며 혁명의 수뇌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철석 같은 신념이며 의지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며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전통을 주체혁명의 만년재보로 끝없이 빛내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넣어 우리 혁명의 군사적보루를 더욱 굳건히 다지며 온 사회에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기풍이 차넘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사회주의조국을 금성철벽으로 지키며 적들이 감히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을 가하여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 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겠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중시로선을 일관하게 틀어 쥐고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 나가는 충실한 혁명전사로, 반제반미의식과 계급의식이 투철한 당의 전사로 튼튼히 준비하겠습니다.

새 세기 첫해에 라남의 봉화를 지펴 주시여 선군시대 혁명적대고조의 발단을 열어 놓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 전당, 전군, 전민이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 진군을 힘차게 다그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십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온 사회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고 인민경제의 정보화, 현대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력을 새로운 높이에서 다져 나가며 충성의 열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뜻 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우리 당과 우리 혁명력사에 빛나게 장식하겠습니다.

우리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신임과 사랑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사업태도와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경제문제와 인민생활문제를 결정적으로 풀고 당과 인민의 크나큰 기대에 기어이 보답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필승불패이며 우리의 앞길에는 끝없이 양양한 미래가 펼쳐 지고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가져 올것이며 우리 세대는 천출위인을 령도자로 모시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운 영웅세대로 조국력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될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다함 없는 충성심과 절절한 념원을 담아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온 세계자주화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김정일장군님과 혁명의 성산 백두산

≪백두산은 나의 고향입니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넋이 깃들어 있고 우리 혁명의 뿌리가 내린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입니다.≫

≪백두산의 높이는 조선의 높이입니다. 조선을 알자면 백두산을 보아야 하며 조선에서 혁명을 하자면 백두산을 알아야 합니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선의 언덕을 수없이 맞받아 헤쳐 나가시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두의 혁명정신입니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만난을 맞받아 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입니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꺾이면 꺾일지언정 신념을 버리지 않는 고결한 혁명정신이며 제힘으로 기어이 이 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숭고한 혁명정신입니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간직하면 총탄이 빗발치는 격전장도 웃으며 달릴 수 있고 단두대에 올라서서도 혁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온 조선혁명의 역사가 증명한 불패의 진리입니다.≫

≪우리 나라는 맑은 아침의 나라, 해솟는 아침의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의 아침은 백두산에서부터 밝습니다. 영광스러운 주체시대의 여명도 바로 이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백두산에서 밝아오는 조선의 아침, 아침해 빛나는 나라 조선은 백두산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 백두산밀영지구에서 개막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15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백두산이 절세위인에 대한 만민칭송의 우렁찬 환호성이 온누리를 진감하며 끝없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이 혁명의 성지 백두산밀영지구에서 성대히 개막됐습니다.

지난해 2월 콜롬비아의 메델린에서 진행된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위원회 특별회의에서의 발기에 따라 백두산밀영지구와 평양에서 진행되는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개막식에는 인류가 낳은 희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대양과 대륙을 넘어 수십개 나라와 지역, 국제기구들에서 온 수많은 외국의 벗들이 참석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위원회 에밀리아 페르난데스 부위원장의 개막사에 이어 이북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대리인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조선위원회 문재철 위원장의 축하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어 러시아작가동맹 대표 알렉싼드르 브레쥬네프와 네팔시인 디파크샤르마 네우파네씨의 즉흥시들이 낭송되고 백두산 선언이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됐습니다.

선언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각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인류자주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21세기의 태양이시고 경애하는 **김정일**각하께서 발전풍부화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영원한 기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진보적 인류의 성새이고 보루라고 강조했습니다.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 경모하는 인류공동의 국제회합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그분을 천세만세 받들고 따르려는 진보적 인류의 절절한 지향과 염원에 의해 태양의 성지에서 진행된 것으로해서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입니다.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가 공인하는 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발전풍부화하시어 우리 시대와 미래 인류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향도이념으로 되게 하신 탁월한 사상이론가이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주체의 **철학과 철학***으로 민중중심의 정치의 새 역사를 펼치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탁월한 정치가, 현대정치의 거장이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불면불휴의 사상이론활동과 비범한 외교지략,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이시어 인류를 자주위업수행에로 힘있게 이끌고 계시는 세계 진보적 인류의 위대한 영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 진보적 인류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그분을 무한히 경모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고 진보적 인류의 절절한 지향과 염원에 따라 이번에 뜻깊은 태양의 성지에서 역사적인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이 성대히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진보적 인류가 높이 우러러 칭송하며 따르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영수로 모신 것은 우리 겨레와 민중의 더없는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우리 민중은 이 무상의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더욱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며 그분의 영도밑에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2월의 명절을 경축하는 세계 진보적인류

김일성주석께와 **김정일**총비서께 드리는 명예칭호증서와 훈장 전달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명예칭호증서와 훈장, 꽃바구니, 축기, 선물전달식이 14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주석께 국제정보기술아까데미야에서 명예원사, 명예박사증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에서 ≪엘 메디 벤 바르까≫련대성훈장과 증서, 조선과의 친선을 위한 영국협회에서 축기를 드리였다.

김정일령도자께 국제정보기술아까데미야에서 명예원사와 명예박사증서, 몽골 동방철학 및 인문학대학에서 명예박사증서와 박사복, 몽골평화친선단체련맹에서 평화금별훈장과 증서, 프랑스와 벌가리아의 친선협회들에서 기념메달들, 베네수엘라 라라주 빨라베씨노시에서 명예훈장과 증서를 보내여 왔다. 또한 그이께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 참가자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친선협회들에서 꽃바구니와 축기, 선물을 드리였다.

명예칭호증서와 훈장, 꽃바구니, 축기, 선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태복비서에게 전달되였다.

리비아국가수반이 꽃바구니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대리비아아랍사회주의인민공동체 위대한 9월1일혁명의 지도자 모아메르 엘 가다피대좌가 꽃바구니를 보내여 왔다.

꽃바구니를 조선주재 대리비아아랍사회주의인민공동체 인민사무소 림시대리비서 마흐무드 마쑤우드 아미르가 해당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몽골대통령이 선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몽골대통령 나짜긴 바가반디가 축하편지와 선물을 보내여 왔다.

축하편지와 선물을 조선주재 몽골특명전권대사 잔치브도르쥔 롬보가 14일 해당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이란대사 연회 마련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조선주재 이란이슬람공화국 대사 잘랄렛딘 나미니 미안지가 14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대사는 연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그이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오늘 미제가 자주적으로 나아가는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해 미쳐 날뛰고 있지만 이란과 조선 두 나라는 자기 령도자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을 물리치면서 전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이란이슬람공화국의 립장은 확고하다고 하면서 대사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은 연설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신것은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할 절세의 위인을 맞이한 우리 민족의 일대 경사였으며 우리 조국의 휘황한 전도를 기약해 준 력사적사변이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과 이란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란의 지도자들과 마련하여 주신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이라고 하면서 양형섭은 우리는 앞으로도 이란과의 친선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백남순외무상, 리광근무역상, 조선이란친선협회 위원장인 리원일로동상 등이 연회에 초대되였다.

조선주재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조선주재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14일 경제 및 무역참사단 단장인 로씨야련방대사관 무역참사 쎄르게이 료우슈낀이 해당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 참가자들과의 련환무대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 참가자들과의 련환무대가 1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21세기의 태양찬가≫로 시작된 련환무대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지니신 위인적풍모를 목격한 여러 나라의 저명한 인사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과 외국류학생들, 조선의 근로자들이 출연하였다. 련환무대에서는 백두산3대위인들을 칭송하는 만민의 뜨거운 마음을 담은 글들과 시작품들을 쓴 여러 나라 인사들이 소개되였다. 련환무대에는 노래와 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특색 있게 펼쳐 졌다.

한편 이날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 혁명의 성산 백두산해돋이 사진전시회도 진행되였다.

2.16경축집회 민주꽁고에서 진행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2일 민주꽁고의 킨샤사에서 정당, 친선단체,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련합경축집회가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화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초상화에 꽃바구니를 증정하였다.

집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여 인류가 나아 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 주시고 독창적인 선군령도로 겹쌓인 시련과 난관을 뚫고 강성대국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집회에서는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스위스에서 뷸레찐특간호 발행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조선통일지지스위스위원회에서 뷸레찐특간호를 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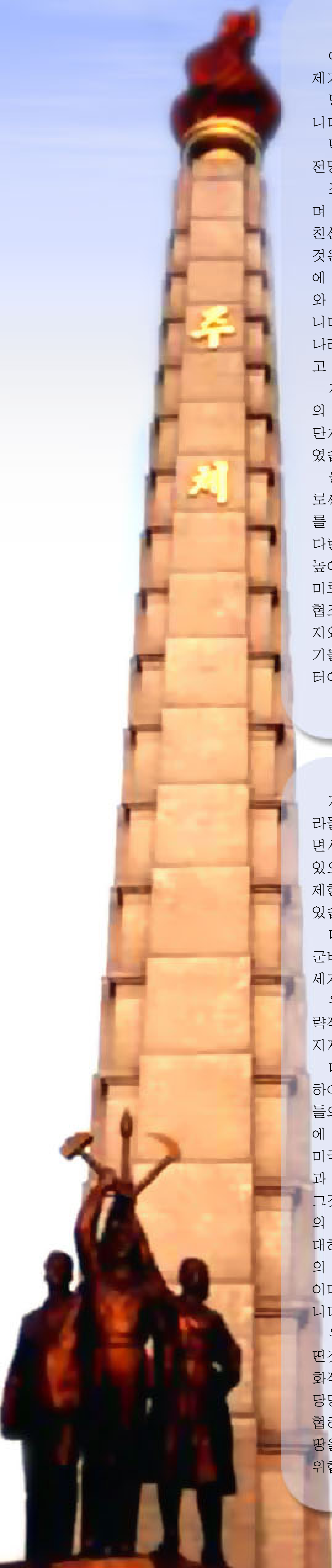
뷸레찐은 ≪21세기의 태양 **김정일**≫, ≪위대한 령장 **김정일**≫,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국가수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뷸레찐은 세계는 선군정치로 조선을 필승불패의 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김정일**동지를 탁월한 군사전략가, 군사의 영재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뷸레찐은 21세기에 조선은 자주적인 강성대국으로 될것이며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민족은 인류문명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따르-따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주체 90 (2001)년 7월 24일



이따르-따스통신사에서 나에게 인터뷰를 제기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먼저 조로 두 나라사이의 관계와 그 발전전망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조선과 로씨야는 국경을 접한 이웃나라이며 조로관계는 오랜 력사를 가진 전통적인 친선관계입니다. 조로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과 로씨야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조로친선을 귀중히 여기며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있은 우리 두 나라 지도자들의 평양상봉은 조로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이였습니다.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이 로씨야국가수반으로서 처음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한것은 조로 두 나라 관계발전에 커다란 기여로 되였으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울라지미르 뿌찐대통령과의 상봉에서 우리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공통된 의지와 입장으로 하여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였으며 호상이해와 신뢰를 두터이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회담과 담화들에서 쌍무관계문제와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었으며 회담결과에 따라 조로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려는 우리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공통된 의지와 지향을 내외에 선포하고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한 우리들의 일치한 견해와 입장을 천명하는 조로공동선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조로공동선언과 지난해 2월에 체결된 조로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조로친선관계의 발전을 담보하는 력사적인 문건입니다. 선언과 조약에는 조로친선협조관계의 원칙과 발전방향이 명백히 규정되여 있으며 정치와 대외관계, 국방과 안전, 쌍무적인 경제협조와 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두 나라 관계발전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다 밝혀져 있습니다. 조로공동선언과 조로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의하여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 호상신뢰와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강화발전되게 되였습니다.

조로친선관계의 발전전망은 매우 좋습니다. 평양상봉이후 두 나라의 광범한 사회계와 인민들속에서는 조로친선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열의가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동선언과 조약의 정신에 따라 지금 우리 두 나라사이에 경제와 군사, 과학기술, 교육,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협조와 관련한 실천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조선과 로씨야는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쌍방의 의지가 확고하고 그것을 담보하는 공동선언과 조약이 있고 수십년간 상호 긴밀히 협조한 전통도 있는것만큼 적극적인 행동조치들을 취한다면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전면적으로 확대발전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조로친선협조관계가 새 세기, 21세기에 훌륭히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국가지도자들사이의 대화는 나라들사이의 관계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들 사이의 관계가 두터우면 나라들사이,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가 좋게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뿌찐대통령의 초청에 의하여 이제 곧 로씨야를 방문하게 됩니다. 로씨야를 방문하여 모스크바에서 뿌찐대통령과 다시 만나는것은 기쁜 일이며 친선적인 로씨야인민들과 상봉하면 나에게 커다란 감회를 불러일으키게 될것입니다. 나는 우리들의 당연한 모스크바상봉이 지난해 평양상봉에서 이루어진 두 나라 지도자들사이의 관계를 두터이하고 조로친선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새로운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문제에 대하여서는 이 문제가 미국이 우리를 걸고 드는 문제이기도 하므로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의 그 무슨 ≪미싸일위협≫을 들고 나오면서 미싸일방위체계를 세우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로씨야와 맺은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을 파기하려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시도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오늘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을 통하여 전략적안정을 유지할데 대한 로씨야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미국이 우리 나라의 ≪미싸일위협≫에 대하여 떠드는것은 완전한 무근거한것이며 저들의 지배주의적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조선이 미싸일로 미국을 위협하며≫ 그로 하여 ≪미국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야 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더우기 미국의 새 행정부가 ≪북조선의 미싸일위협≫에 대하여 떠들다 못해 이제는 우리의 상용무력의 ≪위협≫까지 들고 나오는것은 언어도단이며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횡포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미싸일강령은 순수 평화적성격을 띤것이며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습니다. 평화적인 미싸일강령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당당한 자주적권리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협하는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우리를 항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것은 세상이 다아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은 또한 우리 나라와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의 전망에 대하여 물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 일본의 입장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이미 20세기에 파산당한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을 새 세기에 또다시 들고 나와 조미관계개선의 길을 가로 막고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경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것은 어제도 오늘도 통할수 없는 헛된 시도입니다. 선의에는 선의로 대하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자주정치, 우리의 자주적 대외정책은 일관하며 확고부동합니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그 어떤 도전에 부닥치든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것이며 자신이 선택한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갈것입니다. 우리는 자주성의 호상존중에 기초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라도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린다면 관계개선을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일본이 지난 시기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죄행을 깨끗이 청산하는 문제가 기본입니다. 죄많은 과거를 덮어 두고서는 관계개선이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반동적지배층은 저들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도리여 미화분식하고 정당화하며 그것을 영영 묻어 버리려고 분별없이 책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고 과거청산문제에 대하여 성근한 입장과 태도로 나오며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적대행위를 그만 둔다면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할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당신들은 내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털어 놓고 말하여 나에게는 하여야 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조국땅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야하며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을 통일하기전에는 시간을 낭비할수 없는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취미에 대하여 말한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것은 인민들과 군인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것입니다.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이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는가를 알아도 보고 돌보아도 주며 그들과 어울려 이야기도 나누고 고락을 같이 하는것이 나의 가장 큰 보람이고 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읽기와 음악을 좋아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책과 음악은 우리 사업의 양식이며 생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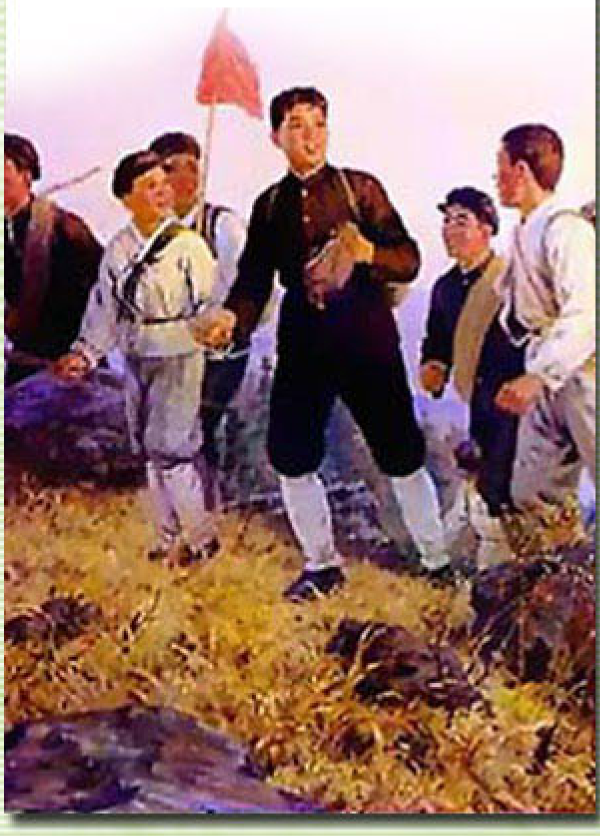
나는 이 기회에 로씨야인민에게 친선의 인사를 보내며 강력한 로씨야와 훌륭한 생활을 건설하기 위한 로씨야인민의 투쟁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

1권 제2장

잊을수 없는 화전

1. 화성의숙
2. 환멸
3. 타도제국주의동맹
4. 새로운 활무대를 그리는 마음
5. 독립군의 녀걸 리관린



3. 타도제국주의동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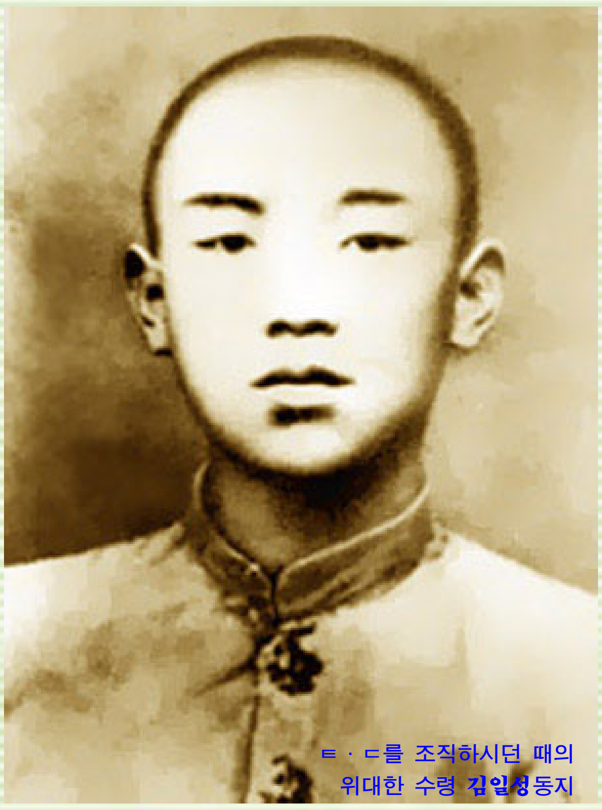
화성의숙의 시대적락후성은 나로 하여금 낡은 방식대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총 몇자루를 가지고 소규모의 무장단성원으로 압록강을 넘나들면서 왜놈순사나 몇놈 처단하고 군자금이나 모으러 다니는 것과 같은 투쟁방법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굳어졌다.

나는 새로운 방법으로 조국광복의 길을 개척해야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품게 되었다. 새 길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나의 동무들도 견해가 같았다. 그런데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은 학생이 몇명 되지 않았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새 사조를 선뜻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계하거나 배척하였다.

화성의숙에서는 공산주의서적도 마음대로 읽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공산당선언≫을 학교에 가지고 나가면 학생들이 내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그런 책은 집에서나 보라고 슬그머니 귀띔해주군 하였다. 학교당국이 제일 경계하고 엄중시하는 것이 적색계 책인데 경중에 따라 퇴학처벌도 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통제를 한다고 읽고싶은 책도 읽지 않으면 큰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책은 퇴학을 시킨다해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산당선언≫은 김시우의 서재에 있던 책이였다. 그 서재에는 공산주의서적들이 많았다. 김시우의 서재는 민족해방운동이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던 당시의 시대상과 그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추려는 김시우 자신의 립장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화성의숙당국이 그런 책들을 읽지 못하게 하니 나로서는 불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의숙의 계률은 어떻든 새 사상에 심취되어 그것을 깊이 파고들려는 우리의 열정은 누잦힐수 없었다. 나는 당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공산주의서적들을 정열적으로 탐독하였다. 그무렵에는 벌써 그런 책을 보고싶어하는 학생들이 줄을 서고 있을 정도로 늘어났을 때여서 우리는 독서순서와 기간을 정하고 제때에 책을 바치도록 하였다. 새 사조를 신봉하는 학우들사이에서 은연중에 약속된 이 독서규범을 청년들은 대체로 잘 지키었다.



ㅌ·ㄷ를 조직하시던 때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런데 성미가 더펄더펄한 계영춘이만은 이 규범을 곧잘 어기였다. 그는 독서기간도 잘 지키지 않고 독서장소를 선택하는데서도 조심성이 없었다. ≪공산당선언≫은 혼자서 열흘이상 끼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동무에게 빨리 넘겨주라고 했더니 그는 좀 발취할 대목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틀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계영춘은 다음날 학교에도 나오지 않고 기숙사에서 슬그머니 새여버리었다. 오전공부가 다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휘발하강가에서 풀숲에 엎드려 정신없이 책을 읽고 있은 그를 찾아내였다.

나는 그에게 책에 심취되는 것은 좋지만 강의에 빠지지 말고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읽으라고 조용히 귀띔해주었다. 계영춘은 조심하겠다고 하였지만 다음날 력사시간에 책을 몰래 꺼내보다가 교원에게 빼앗기였다. 그 책이 숙장선생의 손에까지 들어가서 큰 말썽을 일으키었다. 학교당국은 그 책이 나를 통해 김시우의 서재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을 알고는 나와 총관에게 력사교원을 보내여 야단을 부리었다. 그 선생은 김시우에게 화성의숙의 사업을 잘 도와주어야 할 총관이 학생들이 좌익서적을 읽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는 것은 총관답지 못한 처사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학생들이 그런 책을 읽지 못하도록 단속해달라고 하였다. 나를 보고는 성주도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위협하였다.

나는 학교당국의 처사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이 건전한 인격을 갖추려면 다면적인 지식을 섭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학교당국은 어째서 새것을 한창 섭취해야 할 청년들에게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선진사상을 연구할 권리마저 빼앗습니까. 맑스나 레닌의 저작들이 보통책방에까지 흘러나와 글을 아는 사람이면 다 읽는 판인데 유독 화성의숙에서만은 어째서 그런 책들을 못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화성의숙에 대한 불만을 터놓으며 김시우에게 들이댔다. 김시우는 한숨을 쉬면서 정의부의 시책이고 학교당국의 방침이니 자기 재간으로는 어쩌지 못하겠다고 고백하였다.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척도가 사상인 것처럼 교육의 가치, 학교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척도도 사상이다. 그런데 화성의숙당국은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는 케케묵은 사상으로 새 사조의 물결을 막아보려고 헛되게 애를 쓰고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은 학교안에 맑스-레닌주의를 탐구하는 패가 있다는 것을 감촉하게 되었다. 당국은 이 사건을 가지고 퇴학이니, 엄중처벌이니 하고 요란스럽게 떠들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진보적인 청년들속에서 공산주의사상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을 부채질해주는 결과를 빚어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나한테로 좌익서적들을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학생들의 수가 부쩍 늘어났다.

나는 그런 청년들가운데서 뜻을 같이하고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들을 한 사람한 사람씩 만나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늘 한 말씀이 동지를 잘 사귀고 동지를 많이 가지라는 것이었다. 아무리 정당하고 훌륭한 목적을 가진 사람도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들이 없으면 원대한 뜻을 이룰수 없다고 한 아버지의 말씀을 나는 늘 명심하였다.

많은 학생들과 접촉하였는데 그중에는 1중대에서 온 리모라는 학생도 있었다. 그는 머리도 총명하고 실력도 우수하고 성격이나 기질도 다 좋아서 동무들의 사랑을 받고 있은 학생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상만은 보수적이었다. 세계혁명사과목시간에 왕조복귀를 맨처음으로 주장해나선 학생이 바로 그 청년이였다.

평소에는 그저 지나가면서 한두마디의 말이나 주고받던 그 학생이 나와 속을 터놓을 정도로 친숙해진 것은 조선인모범소학교 고등반학생들과의 축구시합이 있은 후부터였다. 그날 공격수로 활동한 그 학생은 상대편선수와 부딪쳐 다리를 상하였다.

나는 기숙사에 들어가 침식을 같이하면서 열흘 남짓하게 그를 간호해주었다. 그 과정에 그와 흉금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다. 그는 세계혁명사강의시간에 자기가 왕조복귀를 주장한 것은 엉터리없는 일이였다고 하면서 성주가 말한 것처럼 우리 나라는 독립후 근로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빨리 왜놈들을 내쫓고 우리도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지금 화성의숙에서 배워주는 군사교련이나 받으면 왜놈들과 싸워서 이길수 있을 것 같은가, 일본을 세계 5대 강국의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소총 한자루 변변치 못한 독립군의 힘만으로 그런 강적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은가고 물었다.

그 학생은 싸우자면 신체를 단련하고 총을 잘 쏘아야지 별수가 있는가, 오래동안 독립운동을 해오던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야지 다른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였다.

나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는 독립을 못한다, 지금 그 방법을 찾아내려고 맑스나 레닌이 쓴 책들을 읽고 있는데 배울것이 많다, 지금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공산주의사상을 비방중상하고 있고 또 완고한 민족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배척하고 있는데 돈냥이나 있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나쁘다고 한다 하여 로동자, 농민의 자식들인 우리가 공산주의가 어떤것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나쁘다고 해서는 안된다, 참다운 독립운동자, 애국자가 되자면 맑스-레닌주의를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 학생은 내 말에 공감되는지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자기에게도 그런 책을 빌려줄수 없는가고 하였다.

나는 이제 상처만 나으면 책을 빌려줄터이니 우선 치료를 잘하여 빨리 일어나라고 고무해주었다.

새 사조를 동경하는 조류는 걷잡을 수 없는 힘으로 화성의숙을 휩쓸었다. 민족주의를 따르는 완고한 몇몇 학생들을 내놓고는 절대다수가 선진사상을 신봉하게 되었다. 나는 진보적인 청년학생들로써 읽은 책에 대한 토론회를 자주 조직하였다. 토론회는 김시우의 집에서도 하고 숙감인 강제하의 집에서도 하고 휘발하강가에서도 하였다. 총관의 서재에서 토론회가 벌어지는 날이면 김시우는 은근히 왼심을 쓰면서 손님들은 물론, 집안식구들까지 그 방에 드나들지 않도록 엄하게 단속하군 하였다. 때로는 토방우레 걸터앉아 무슨 허드레일을 하는척하면서 망도 봐주었다. 그때마다 나는 말없는 그의 행동에서 후더운 인정과 지지를 느끼였다.

우리가 강제하의 집을 토론회장소로 정한 것은 그의 아들 강병선이 나와 가까운데도 있지만 장제하자신이 아버지의 친구인데다가 사상경향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강제하는 민족주의자이지만 공산주의를 배척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놀러 가면 앉혀놓고 공산주의선전을 하였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틀렸는데 자네들은 공산주의적 방법으로라도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이 우리한테는 적지 않은 힘이 되었다. 그의 집에는 공산주의서적도 여러권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아도 그때 우리는 조선혁명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들을 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토론을 진행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런 토론과정을 거쳐 청년들은 조선혁명에 대한 견해와 립장을 통일시킬수 있었다.

어느날 김시우네 집에서 이런 토론을 하고 있을 때 나의 간호를 받던 리동무가 쌍지팽이를 짚고 찾아와 약속했던 책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의 말이 다른 동무들은

➡

다 새길을 가는데 자기 혼자 기숙사에 누워있자니 락오자가 되는 것같아서 찾아왔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그도 우리와 한길을 걷게 되였다.

자본가들은 돈을 모으는 재미가 별재미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동지를 모으는 재미가 최상의 락이고 재미였다. 동지 한명을 얻을 때의 희열을 어찌 황금덩이 하나를 얻을 때의 기쁨에 비길수 있겠는가. 동지를 얻기 위한 나의 투쟁은 이렇게 화성의숙에서부터 첫 발자국을 떼였다. 그때부터 나는 한생을 동지를 얻는 일에 바치였다. 좋은 동지들이 주위에 많이 집결되자 나는 이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결속하여 판을 크게 벌려볼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모대기였다. 동무들에게도 내 생각을 터놓았다. 그것이 아마 9월말경에 있은 모임에서였다고 기억된다. 내가 그날 조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였던 것 같다. 나라를 해방하고 근로민중이 잘 사는 세상을 세우자면 멀고도 험난한 길을 개척해야 한다, 우리가 대오를 늘이고 완강하게 혈전을 벌려나간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조직을 내온 다음 대중을 그 두리에 묶어세우고 각성시켜 그들의 힘으로써 나라를 광복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말했더니 동무들이 다들 기뻐하면서 빨리 조직을 내오자고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조직을 내오자면 준비를 더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와 사상을 같이하며 함께 투쟁할 수 있는 동무들을 더 많이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임에서는 앞으로 조직성원이 될만한 대상들을 정한 다음 아무개는 누구를 맡고 아무개는 누구를 맡아 교양한다는식으로 분공조직도 하였다.

그런데 몇몇 동무들이 우리가 장차 새로운 조직을 내오면 또 하나의 파가 생기지 않겠는가고 우려하였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우리가 무으려는 조직은 민족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의 분파와는 전혀 다른 새형의 혁명조직이다, 그것은 파쟁을 하자는 조직이 아니고 오직 혁명을 하자는 조직이다, 우리는 자신을 혁명에 깡그리 바쳐 싸우고 또 싸우는 것으로써 만족할 것이다.…

우리는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 당시 중국의 국경절인 쌍십절(10월10일)에 조직을 내오기 위한 예비회의를 열고 조직의 명칭과 성격, 투쟁강령, 활동규범들에 대한 토의를 하였으며 한주일후인 1926년 10월 17일에는 김시우네 집에서 정식으로 조직을 무었다.

연탁도 없는 수수한 온돌방에서 모임은 조용히 진행되였다. 그러나 그 방에 차넘치던 활기와 열정만은 60여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날은 동무들도 흥분하고 나도 흥분하였다. 조직을 뭇는 마당에 정작 나서고보니 왜 그런지 돌아가신 아버지생각이 떠오르고 조선국민회생각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조선국민회를 무으려고 여러해동안 수만리길을 걸으면서 사방에 흩어져있는 동지들을 결속하였다. 국민회를 내온뒤에는 그 리념을 실현하기 위해 한생을 깡그리 바치다가 돌아가시였다. 그리고 이루지못한 뜻을 자식들에게 넘겨주었다. 뼈가 부서지고 몸이 찢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한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길에서 드디여 첫열매를 맺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가슴도 울렁이고 눈물도 났다. 우리가 내오게 된 조직의 강령에는 아버지의 리념도 포함되어있었다.

그날 모임에 참가하여 열변을 토하던 청년들의 얼굴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하다. 최창걸, 김리갑, 리제우, 강병선, 김원우, 박근원,… 후날 배신은 하였지만 리종락과 박차석도 혁명을 위해 피와 살을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전투적인 언약을 하였다.

언변이 좋은 사람도 있었고 서투른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훌륭한 토론들을 하였다. 나도 그때로서는 꽤 긴 연설을 하였다. 그 모임에서 나는 우리가 뭇는 조직을 타도제국주의동맹으로, 략칭으로는 ≪ㅌ,ㄷ≫라고 할 것을 제의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반제, 독립, 자주의 리념밑에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새 세대의 청년들이 력사의 진통속에서 창조한 순결하고 참신한 새형의 정치적 생명체였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목적으로 이 동맹을 결성하였지만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너무 좌익적인 조직인 것 같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조직의 명칭을 타도제국주의동맹이라고 하였다. 그만큼 우리는 그때 민족주의자들과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조직의 명칭을 타도제국주의동맹으로 하자는 제의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내가 발표한 ≪ㅌ,ㄷ≫의 투쟁강령도 그대로 채택되었다. ≪ㅌ,ㄷ≫는 문자그대로 제국주의일반을 타도하자는 조직이였던 것만큼 그 구호도 대단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당면과업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 것이며 최종목적은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는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는 것이였다. 우리는 이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방침도 채택하였다. 모임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등사한 규약책도 나누어주었다. 그 회의에서 최창걸이 나를 타도제국주의동맹 책임자로 추천하였다.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한덩어리가 되어 휘발하강가에 달려나가 노래를 부르며 조국과 민족을 위한 혁명의 길에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였다. 그날 나는 잠이 전혀 오지 않아 뜬눈으로 밤을 밝히였다. 너무도 흥분이 크고 감격이 커서 잠을 이룰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때 온 세계를 전취한 것 같은 감격과 희열에 휩싸여있었다. 돈더미우에 올라앉은 억만장자들의 락을 어떻게 이런 기쁨에 비길수 있을 것인가.

그 당시 공산주의운동내부에는 큼직한 간판을 가진 조직들이 많았다. 우리는 조직을 방금 내온데 지나지 않았다. 규모를 보면 아직 그런 조직들에 비길만한 형편이 못되였다. 세상은 아직 ≪ㅌ·ㄷ≫라는 것이 나왔는지 어쨌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ㅌ·ㄷ≫를 뭇고나서 그처럼 열광적인 기분에 휩싸였던 것은 우리가 만든 조직이 종래의 조직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형의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이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ㅌ·ㄷ≫는 어느 파에서 갈라져나온 조직도 아니고 또 거기에 망라된 성원들로 말하면 어떤 종파에 가담했거나 망명단체에 가있다가 떨어져나온 사람들도 아니였다. 문자그대로 백지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새 세대였다. ≪ㅌ·ㄷ≫의 피에는 잡것이 섞여있지 않았다.

그 성원들로 보면 또 다 만만치 않은 인물들이였다. 연설을 하라고 하면 연설을 하고 론문을 쓰라고 하면 론문을 쓰고 노래를 지으라고 하면 노래를 짓고 격술을 하라고 하면 격술도 할 수 있는 끌끌한 재목들이였다. 지금말로 한다면 ≪일당백≫, ≪일당천≫의 청년들이였다.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새 길을 개척하자고 덤벼들었으니 그 기세 또한 대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후 ≪ㅌ·ㄷ≫성원들은 우리가 개척한 혁명위업이 어려운 국면에 처할 때마다 항상 육탄이 되어 그 출로를 열어나갔다. 그들은 조선혁명의 핵심부대로서 어데서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혁, 차광수, 최창걸, 김리갑, 강병선, 리제우를 비롯하여 ≪ㅌ·ㄷ≫의 산아들 중 많은 사람들은 투쟁의 앞장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고결하게 생애를 마치였다.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출발은 잘 떼고서도 혁명투쟁이 심화되는 과정에 ≪ㅌ·ㄷ≫의 리념을 저버리고 배신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제는 ≪ㅌ·ㄷ≫시절에 나와 같이 손잡고 일하던 사람들이 한명도 남지 않았다. 조국의 독립과 무산민중의 사회를 그리며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싸우던 수많은 ≪ㅌ·ㄷ≫의 아들딸들이 좋은 세상도 못보고 꽃같은 나이에 모두 일찌기 우리 곁을 떠나가버리였다. 그들은 청춘을 바쳐 우리 당과 혁명의 초석을 쌓아놓았다.

우리 당 력사에서는 ≪ㅌ·ㄷ≫를 당의 뿌리로 보고 있으며 ≪ㅌ·ㄷ≫의 결성을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시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뿌리에서 우리 당의 강령이 태어나고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원칙에 마련되고 우리 당창건의 골간이 육성되였다. ≪ㅌ·ㄷ≫가 조직된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새로운 걸음을 떼였다.

그때 우리가 추켜들었던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리념이나 기개에 대하여서는 해방직후 최일천(최형우)이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서 ≪≪ㅌ·ㄷ≫와 **김일성**≫이라는 제목으로 그 일단을 서술했다고 생각한다.

여러해가 지난후 혁명군이 창건되고 조국광복회가 태어나 2천만의 총동원을 소리높이 웨칠 때 그리고 그 대렬을 수천수만의 지지자, 동정자들이 위성처럼 둘러싼 혁명의 전성기가 도래하였을 때 나는 화전에서 우리가 ≪ㅌ·ㄷ≫를 조직하던 시절을 감개무량하게 회상하군 하였다.

6.15공동선언이행을 차단시킨 부시행정부의 죄악백서 (2)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 주체91 (2002)년 2월 13일

3. 전쟁위기를 몰아온 죄악

6.15공동선언으로 화해와 완화의 난류가 흐르던 한반도에는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냉전의 한류가 밀려들게 되었다.

첫째, 전쟁내각세우기

부시정권은 그 출신 자체가 화약내 풍기는 국방색정권으로 생겨나고 전쟁내각으로 등장했다.

걸프전의 주범인 애비 조지 부시를 빼어 닮은 주전론자인 부시는 백악관의 외교안보팀을 그 차관급에 이르기까지 강경보수파일색으로 앉혔다.

부대통령과 국무장관, 안보보좌관에는 다 전임 부시행정부시절 각각 국방장관,

합참의장, 안보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걸프전의 맹수로, 대소붕괴작전의 귀신으로 악명 떨친 철저한 힘의 광신자들인 체니, 파월, 라이스를, 국방장관에는 미사일방어체제개발을 제안한 포드행정부때의 국방장관 럼스펠드를, 국무부장관에는 페리보고서에 대칭되는 보수적인 아미티지보고서를 제출했던 매파출신 아미티지를, 국방부장관에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과 대북강경정책을 제창해온 월포위츠를 골라앉혔다. 모두가 군부출신이고 주전론자들이며 대북강경파들이다.

≪국방색정권인 부시정권은 미사일방어체제라는 도끼로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내리찍겠다는 백색테러를 추구하면서 북은 빨갱이정권이므로 붕괴시켜야한다고 지껄여대고 있다.≫(말, 2001년 7월)

≪주전론자들로 꾸려진 부시정권의 세계전략은 한마디로 대국주의적인 패권체제를 군사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기독교방송 2002년 1월 4일)

≪부언하면 일단 아프간전으로 시동이 걸린 전쟁정책을 지속시켜 전쟁국가로써의 기능을 극대화하여 패권을 쥐겠다는 것이며≫(기독교방송 2002년 1월 4일)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평정하고 이 세계를 힘센 자들의 정글세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한겨레 2002년 1월 4일)

둘째 전쟁공조체제쌓기

≪부시정권이 한미관계기조로 삼고 있는 한미공조체제란 한국을 미사일방어체제에 끌어들이고 미일에 편입시키며 반테러전에 결박할 것을 겨냥한 전쟁공조체제이다. 이것을 위해 한국에는 파월국무장관과 아미티지국무부장관 등 미사일방어체제관계자들이 연속 쓸어들어 밀담을 벌여놓고 미사일방어체제에 필요한 무기구매를 강박하여 왔다.≫(한겨레 2001년 6월 29일)

≪이에 뒤이어 지난해 7월 월포위츠미국방부장관이라는 자는 한반도에 공중레이저 무기개발배치가 필요된다고 공언하였으며 전 태평양지역 미해군사령관이라는 자는 우리의 제1주적은 이북이다. 한국정부가 패트리어트미사일을 사다 배치하면 그것이 바로 전역미사일방어체제이라고 지껄여댔다.≫(경향신문 2001년 7월 16일, 민 2001년 4월)

≪현실적으로 한미간에는 미사일방어체제에 필요한 패트리어트와 스탠다드미사일발사대를 비롯한 무기들과 부품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사일방어체제준비를 위한 한미군사협력체제가 가동되고 있으며 미국방부는 앞으로 2003년까지 북으로부터 20에서 50킬로미터 떨어진 동해상에 요격미사일 30기를 장착한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미사일방어체제 첫 시험무대를 동해로 선정하는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제2라디오 2001년 5월 10일)

≪오늘 미국과 일본, 한국은 다같이 심상치않은 경제적 침체속에 있다. 그 출로를 전쟁에서 찾으려는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여 미국과 일본에서는 주전파 우익보수정권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6.15공동선언에 서명하고 평화선언이나 들고 다니는 한국정권이 고울리 없다.

지금 부시행정부가 한국의 우익보수세력을 밀어주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냉전기득권세력을 복귀시켜 전쟁체제를 만들어내려는데 있다. 부시행정부는 9.11사건이 일어난후 한국에 아프간전 파병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테러전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강박해나섰다.≫(제1라디오, 2001년 11월 15일)

이것은 한국을 미국의 전쟁수레바퀴에 얽어매고 한미전쟁공조체제를 굳혀 나가기 위한 것이였다.

셋째, 전력증강달리기

≪부시행정부는 북에는 일방적인 무기감축을, 남에는 무기강매를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전력증강달리기에 나서고 있다. 부시의 이 전력증강달리기, 전쟁달리기는 한국의 언론들이 지적한 것처럼 북이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벗겨 무방비상태로 만들어놓고 힘들이지 않고 먹어보겠다는 이북죽이기론이다.≫(말, 2001년 7월)

≪부시행정부는 바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북에는 미사일개발수출금지를 강박하면서 이남에는 2004년까지 사거리 300킬로미터 다연장전술지대지미사일 111기, 패트리어트지대공미사일들을 강매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북에는 재래식무기감축을 강박하면서 이남에는 공중사령탑으로 불리우는 조기경보기, 공군차기유도무기, 쌈엑스두개 대대, 공군차기전투기(FOX), 육군 차기공격헬기(AHX), 해군 이지스급구축함(KDS3), 지휘헬기

(VHX), 무인정찰기(UAV) 등 총10조원에 이르는 무기들을 지난해부터 강매하고 있다.≫(신동아, 2001년 4월)

≪이와 함께 주한미군에는 구형 아파치헬기들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동시에 정찰용 무인항공기, 팝아이미사일, 아프간전에서 사용된 벙커버스토보다 더 강력한 갱도파괴 신형무기들을 도입하기로 하였다.≫(한겨레, 2001년 12월 5일, 조선일보, 2001년 5월 14일)

≪그리고 북침전에 대비한 새로운 기동타격여단을 금년까지 새로 편성하기로 하였다.≫(제1라디오, 2001년 5월 16일)

군사적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깡패국가는 바로 미국이다.

넷째, 전쟁구실만들기

≪지난해 11월 27일 부시는 북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날 부시는 백악관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이북은 대량파괴무기개발과 확산을 중단해야한다. 그 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필요한 검증을 허용해야한다. 대량파괴무기를 지원할 경우 테러리스트와 다를바 없으며 미국의 공격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경고하였다.≫(제1라디오, 2001년 11월 27일)

≪기자회견이 끝나자 내외신들속에서는 탈레반붕괴이후 전쟁확대가능성이 적극 고조되는 시점에서 나온 그의 망언은 이북에 보내는 압박용 최후통첩이라는 평들이 쏟아져나왔다. 이보다 앞서 11월 19일 존 볼튼 미국무부차관은 제네바에서 열린 생물무기금지협약 국제회의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이북은 수주일안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생물무기와 세균무기를 생산할수 있는 국가라고 비

난하였다.≫(제1라디오, 2001년 11월 20일) 이것은 지금까지 미사일방어체제개발을 위한 명분용으로 써오던 북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에 새로 생물화학무기문제까지 포함시켜 대량파괴무기라는 어마어마한 용어로 포장해 가지고 전쟁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카드로 써먹으려는 사전준비작업이였다.

부시의 대북최후통첩에 뒤이어 미국의 정보계는 이북이 장거리미사일을 수출하고 있다느니 알카에다가 이북과 이라크와 같은 테러지원국들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사들이려할지 모른다느니 탄저균이 이북에서 생산된 것일수 있다느니 하는 여론조작으로 이북을 테러와 연결시키려는 시나리오들을 연출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뉴욕타임스에는 ≪탈레반 다음은 누구 북조선을 잊지말라≫라는 기사가 실리고 부시행정부의 호전광들속에서는 다음에 반테러전의 목표는 북조선이 될수 있다. 광범위한 사찰을 거부할 경우 외교보다는 전쟁이 우선시될수 있다는 전쟁폭언들이 꼬리를 물고 뱉어지고 있다.

대량파괴무기라는 선동적인 용어로 북침전쟁구실을 만들어가지고 북을 압박해오던 부시호전광은 마침내 지난 1월 29일 연두교서에서 북은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이라는 악담을 줴쳤다. 이것은 반테러확대전의 목표를 이북으로 공시한 북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였다.

원래 부시정권의 새로운 21세기 군사전략의 기본 과녁은 아프간이 아니라 이북이였다. 부시행정부가 출범하자부터 있지도 않는 북의 군사적 위협을 계속 눈덩이처럼 불궈가며 도저히 허용할수 없는 강도적 요구를 내걸고 북을 압박해온 것은 미국의 세계전략중심으로 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관문에 반미전방도로로 서있는 북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것이였다. 9.11사건후 지금까지의 움직임은 북을 반테러전쟁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것이였다. 아프간전쟁을 개시하자 한반도의 남쪽에 새로운 기동무력을 전진배치한 것은 북침작전을 노린 것이였고 아프간전에서 승산이 보이자 대량파괴무기문제를 거들고 나온 것은 전쟁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였으며 ≪악의 축≫폭언은 북침전쟁을 위한 도발적인 포고였다. 2월 19일 부시의 서울행각은 이것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실전에로 넘어가기 위한 전쟁행각이다. 이것은 미국이 패권적 세계전략을 위해 남과 북의 우리 민족 모두를 핵전쟁의 참화속에 멸살하려는 대범죄전이다. 부시야말로 테러의 두목이고 악마의 화신이며 전쟁깡패이다. 모든 사실은 부시행정부가 선임정권과는 다르게 한반도문제를 힘으로 낙착짓기로 했다는 것을 실증하여준다. 우리 민중은 부시의 서울행각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이 백지화되고 이 땅에서 민족공멸을 가져올 전쟁의 불꽃이 튕기는 것을 방관시할수 없다.

바야흐로 반세기이상 미국때문에 민족분단의 재난속에서 민족자주권과 존엄을 짓밟히고 뼈와 살점을 뜯기우며 수난민으로 살아온 우리 민중이 미국과 총결산을 지을 때가 왔다. 우리 민중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와 함께 부시의 서울행각을 결사반대 배격하는 거족적인 반미반부시투쟁에 분기하여 악의 왕초인 부시에게 준엄한 징벌을 내릴 것이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이 기회에 악의 제국 미국과 총결산을 짓고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이 땅에 자주, 평화, 통일을 안아오려는 우리 민중의 정의의 투쟁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시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구국의 소리

날이 갈수록 규탄배격받는 부시망발

대담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14일

이 시간에는 ≪날이 갈수록 규탄배격받는 부시망발≫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모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지금 이 땅에서는 미국대통령 부시의 호전적인 ≪악의 축≫발언을 규탄하고 부시방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날이 흐를수록 더욱 강도높게 울려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한 각계의 투쟁 소식 어떻습니까.

김현규 : 부시규탄의 목소리는 한총련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속에서 강력히 울려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오전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 정문앞에서 부시 미대통령의 ≪악의 축≫발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학생들은 부시가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 말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비난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촉구한뒤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는데요. 참석자들은 연초부터 북과 남이 함께 하는 설맞이행사 등으로 남북간 화해기운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부시미대통령은 북에 대한 ≪악의 축≫발언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했다면서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회자 :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지난 8일 2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부시미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한반도평화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연대회의는 애초 3.1절을 맞아 이 선언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부시가 북을 겨냥해 ≪악의 축≫발언을 연발하는 등 한반도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부시방한전에 평화선언을 발표하기로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이들이 발표한 ≪평화선언≫은 미국정부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호전적인 발언과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북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평화선언발표와 관련해 신문 ≪한겨레≫는 지난 9일 ≪시민단체의 한반도평화선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요.

사설은 ≪자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대북강경정책은 한반도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할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사회자 : 방금 ≪한겨레≫ 사설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와 같은 사설은 ≪노동일보≫에도 실리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네, 그렇죠. 지난 8일 ≪노동일보≫는 ≪미국의 전쟁도발 당장 중지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요. 사설은 ≪미국은 9.11테러사태이후 저들의 적대국인 북에 대해 연일 난폭한 무법자들이나 할수 있는 무도하고 폭압적인 형태의 폭력성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독점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북의 군사력강화를 막으면서 동시에 이번 기회를 미사일방어체제구축전략 등으로 전세계를 자기들의 지배하에 묶어두려는 야망실현의 전술적 고리로 악용하려는데 그 저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아프간에 대한 무력침공으로 탈레반정권을 붕괴시킨 미국은 이제는 무력이면 다 된다는 발상아래 미국과 적대적인 모든 나라에 무력침탈을 더욱 늘이는 위험천만한 망상이 우려된다. 특히 미국의 북에 대한 전쟁도발이 위험스럽다. 만약 미국이 북에 대한 무력행사를 감행한다면 한반도전체가 전쟁터가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남북에 걸친 우리 민족전체의 생존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에 대해 무력행사를 한다면 그것은 자기들의 국가적 이익과 패권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민족전체의 생존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이다. 603개 우리 시민단체 전부가 미국의 한반도전쟁정책중단 등을 요구하며 부시방한반대투쟁에 들어가자. 만일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려하면 시민단체뿐 아니라 전국민이 일어나 미국과 싸워야 할 것이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사회자 : 지극히 당연한 호소라 하겠는데요. 각계 민중은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와 민족공멸을 초래하려는 부시호전집단의 횡포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총분기해나설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15일

2월의 명절을 즈음해 회견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해 14일 평양에서 국내외기자들과 회견했습니다.

박광기대표는 백두산장군이신 위대한 **김정일**님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은 우리 민족과 인류가 또 한분의 걸출한 수령을 맞이한 대경사의 날이며 **김일성**조선의 부강번영과 주체시대의 창창한 미래가 확고히 기약된 영원한 명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사스러운 2월의 대명절에 즈음해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인류의 다함없는 축원속에 탄생일을 맞으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 있으며 장군님따라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할 의지와 맹약을 더욱 굳게 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남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흠모와 칭송이 전사회적인 감정으로 승화되어 대세의 흐름으로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민심을 반영해 언론매체들이 장군님의 위대성을 대대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대해서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학교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업적을 깊이 연구보급하고 있다면서 **김일성김정일**연구, 주체사상연구 등 지금까지 취급하지 않던 부분까지 연구교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남 민중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신 위대한 정치가로 높이 칭송하면서 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우러러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남 민중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이룰수 있는 공적중의 공적으로 칭송하고 있다면서 조국통일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해 가까운 시일안에 이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민전은 각계 민중과 더불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끝까지 따를 것이며 다함없는 충성의 한길에서 통일조국의 새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규탄대회 통일연대,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와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의 주최로 8일 조선일보사앞에서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행위에 대한 규탄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대회는 1월 30일에 있었던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에서 내린 판결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판결문을 조선일보측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민간법정에서는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기소된 보도기사에 대한 사죄, 관련 책임자처벌 등의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회에서 전국연합 오종렬상임의장은 일제시기 조선일보가 일왕의 친자로 자처하며 독립군을 탄압하는데 앞장서는 등 동서고금에 유례없는 친일행위를 감행한데 대해 규탄했습니다.

그는 독재정권에 아부굴종해왔으며 지금도 겨레의 통일행군을 방해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역사앞에 단죄하는데 서울시민이 함께 나서자고 호소했습니다.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김동린상임대표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등이 바로 이 땅에서 악의 축을 이루고 있다면서 그것을 반드시 무너뜨려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연대의 강영구조직국장, 불교통일연대의 진관스님은 북을 헐뜯는데 여념이 없는 조선일보를 비난하면서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경찰의 저지를 뚫고 판결문을 조선일보사 출입문안에 던져넣었습니다.

이회창의 경솔한 행위 비난 민주당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이 미국행각때 ≪부시의 ≪악의 축≫발언을 지지한다≫고 말했다는 외신보도와 관련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였다며 해명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한광옥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회창이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평화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단히 경솔하게 대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2월 15일

2. 16경축 중앙보고대회

조선에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을 맞으며 2. 16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5일 평양의 4. 25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의 공동축하문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이 전달하였다.

이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강성대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라는 제목의 경축보고를 하였다.

그는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은 조선민족의 대통운이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에서 창창한 미래가 열려 진 거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해 온 조선혁명은 **김정일**령도자를 모시여 빛나게 계승되고 승승장구하여 왔다.

김정일령도자를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모시였기에 조선혁명은 20세기의 대동란속에서 추호의 흔들림없이 전진하면서 주체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높이 떨칠수 있었으며 선군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력사를 펼쳐 나갈수 있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독창적인 정치방식, 비범한 령도력으로 조선혁명의 년대기에 일대 전환의 새 시대를 열어 놓으시였다.

그는 올해는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 조선인민군창건 70돐이 되는 력사적인 해이라고 하면서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올해를 조선인민의 혁명적기개를 떨치는 영광의 해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총대는 곧 국력이며 강성대국건설의 근본담보라고 하면서 총대로 개척되고 총대로 승리하며 전진하여 온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여 총대를 중시하고 당의 선군정치를 변함없이 높이 받들어 나갈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제 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며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우리 힘으로 해나감으로써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끝없이 떨쳐 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위업이였으며 우리 세대에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실현하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 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옳게 구현해 나가야 하며 그것을 말살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침략자들에 대한 우리 인민군대의 립장은 단호하며 우리의 총대는 언제나 무자비하다고 하면서 그는 만약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감히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곧 그들의 종국적파멸로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모두다 **김정일**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이 연설하였다.

≪한민전≫평양대표부 대표 국내외기자들과 회견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는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14일 평양에서 가진 국내외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남조선인민들은 백두산장군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21세기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우러러 따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지금 남조선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흠모와 칭송이 전 사회적인 감정으로 승화되여 대세의 흐름을 이루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남조선의 주요신문 7종과 잡지 14종에서만도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 700여상을 정중히 모시고 위대성기사 900여건을 게재하였다.

학계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업적을 깊이 연구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교육과 함께 ≪**김일성**, **김정일**연구≫, ≪주체사상연구≫, ≪조선로동당연구≫ 등 지금까지 거의 취급하지 않던 부분까지 연구교육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소개선전하는 사업에서 청년주체주의자들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을 전면적으로 수록한 전기형식의 위대성총서 ≪**김정일**≫이라는 단행본이 공개출판되고 위대성선전물들이 합법적인 정기간행물로 보급되고 있으며 장군님의 위대성을 소개하는 인터네트싸이트들이 등장하여 사람들을 크게 격동시키고 있다.

그는 ≪한민전≫은 각계 민중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끝까지 따를 것이며 다함 없는 충성의 한길에서 통일조국의 새날을 맞이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박광기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숭배심을 보여 주는 록화물을 보았다.

조선정부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서는 1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백남순외무상, 리광근무역상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백남순은 연설에서 조선인민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시며 사회주의승리의 찬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의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으며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이 땅우에 통일되고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 말 불 타는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고 사상이 위대하고 군대가 위력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우월하기에 우리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외교단 단장인 팔레스티나국가 대사 샤히르 무함마드 아브둘라흐는 연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은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최대의 민족적명절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의 마음은 지금 그이께서 탄생하신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뜻 깊은 명절을 맞으며 자기들은 친선적인 조선인민과 함께 자기들이 대표하는 국가들과 조선사이의 친선협조의 뉴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결의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희세의 대위인전 ≪김정일동지전기≫출판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혁명활동과 불멸의 업적을 집대성한 도서 ≪**김정일**동지전기≫ 제1권을 출판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에서 편찬한 ≪**김정일**동지전기≫ 제1권에는 주체31(1942)년 2월부터 주체63(1974)년 2월까지 력사적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혁명활동과 업적이 15개장으로 나뉘여 62개의 제목으로 수록되여 있다.

혁명사적표식비 건립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혁명사적표식비가 해주시인민보안서와 구성시 오봉협동농장에,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현지지도표식비가 원산수산사업소, 강원도인민병원, 곽산군 초장협동농장에 각각 세워 졌다.

해당 단위들에는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 있다.

혁명사적표식비제막식이 해당단위들에서 각각 진행되였다.

2. 16경축 행사들 진행

2. 16경축 인민무력부 예술소조종합공연과 평양시학생소년들의 덕성이야기모임 ≪아버지 장군님 계시여 영원한 우리 행복≫이 14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행사들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 학생소년들의 다함 없는 존경과 열화 같은 숭배심을 감동깊이 노래하였다.

김일성주석께 경의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14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최청산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류태영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전국련합회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께 경의를 표시하였다.

해외동포들은 생전의 모습 그대로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이어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수여해 드린 훈장들과 메달들, 우리 민족이 최대의 국상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던 그 나날들을 다시금 돌이켜 보게 하는 울음홀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시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리용하신 렬차와 승용차를 주의 깊게 돌아 보았다.

고통련, 경축행사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국제고통련과 우즈베끼스딴고통련의 공동주최로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따슈껜뜨주에서는 여러가지 체육, 오락 경기들이 진행되였으며 따슈껜뜨시에서는 모란봉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콤퓨터총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

최근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는 뜻 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콤퓨터총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제작하여 내놓았다.

콤퓨터총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은 항일혁명투쟁의 력사와 백두산3대장군께서 백두산지구와 량강도에서 진행하신 혁명활동을 비롯한 백두의 혁명전통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백두산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량강도의 자연지리적 및 생태학적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하여 편찬제작한 콤퓨터다매체편집물이다.

콤퓨터총서는 ≪백두산3대장군≫, ≪혁명전통원문자료≫, ≪백두산전설≫, ≪혁명전통년표≫, ≪백두산지구답사≫, ≪혁명력사지도≫ 등 11개의 편으로 구성되여 있다.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고 생활하는 기풍과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사업기풍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강좌 제278회

서철원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2월 13일

이 시간에는 인민적 사업작풍의 중요내용중에서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고 생활하는 기풍과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사업기풍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우리 당의 사업작풍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입니다.≫

이와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한다는 것은 사상적으로 노쇠하거나 안일 해이함이 없이 사업과 생활을 언제나 혁명적인 기백과 왕성한 생활의욕을 가지고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진공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는 것은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들이 마땅히 지녀야할 사업태도이며 생활기풍입니다. 그러면 왜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을 전투적인 당으로 만들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전당에 차 넘쳐야 당이 생기발랄하고 전투적인 당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해야 혁명과 건설에서 소극과 보수를 배격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대담하고 혁신적으로 풀어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기적을 연이어 창조하고 그 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노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반대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노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지 않고는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울 수 없습니다. 노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는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과 근본적으로 대치되는 낡은 사업태도이며 혁신과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이 노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에 빠지게 되면 생기가 없이 물크래 해지며 될수록 편안히 지내려 하면서 앉아 먹이려 합니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패기와 정열에 넘쳐 생활하는 기풍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와 대치되는 그릇된 낡은 사상, 낡은 사업태도를 철저히 극복해야 됩니다.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혁명적 낙관주의와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높은 창발성과 열성을 발휘하여 모든 사업을 진공적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혁명적 낙관주의는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굳게 믿고 그 어떤 강고한 조건에서도 절개를 굽히지 않는 백전불굴의 혁명정신입니다. 그리고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언제나 신심에 넘쳐 생활하고 투쟁하는 고상한 사상감정입니다. 이런 혁명적 낙관주의를 지니면 순간의 안일과 해이도 허용하지 않고 맡은 혁명임무 수행에 있는 힘과 정열을 다 쏟아 붇게 되며 사업을 패기있게 전투적으로 밀고 나가게 됩니다. 왕성한 사업의욕은 사회에서 지칠 줄 모르는 투지와 패기를 발휘하게 하고 언제나 정열에 넘쳐 사업을 진공적으로 밀고 나가게 합니다.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고 생활하는 기풍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가지고 낙천적으로, 문화정서적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혁명가들에 있어서 투쟁과 생활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가정도, 생활도, 안중에 없고 투쟁밖에 모르는 메마른 사람들이라는데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을 전혀 모르고 하는 그릇된 소리입니다. 세상에 공산주의자들만큼 생활을 사랑하고 정서가 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투쟁 속에 생활이 있고 생활 속에 투쟁이 있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비관과 동요를 모르고 언제나 신심에 넘쳐 낙천적으로 다정다감하게 살며 투쟁하는 것입니다. 문화정서생활을 잘하고 생활을 낙천적으로 다정다감하게 해야 인간의 참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한 생을 보람있게 살아 나갈 수 있습니다. 문화정서적으로 낙천적으로 다정다감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의 참된 삶의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인정미도 혁명동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있을 수 없고 결국 패기와 정열에 넘쳐 대중을 이끌어 나가는 사업기풍을 세울 수 없습니다. 문학도 알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생활을 낙천적으로, 문화정서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만이 언제나 비관을 모르고 희망과 신심에 넘쳐 사업과 생활을 패기있게, 정열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은 노동계급의 당과 일꾼들이 지녀야할 인민적 사업작풍의 하나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사업기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우리당의 사업작풍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사업기풍입니다. ≫

이와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사업기풍은 당과 혁명, 노동계급과 인민의 이익의 견지에서 모든 것을 정확히 보며 판단하며 처리해나가는 사업기풍입니다. 사업을 원칙성있게 한다는 것은 당적, 노동계급적 입장에 확고히 서서 모든 문제를 보고 판단하고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공명정대하게 한다는 것은 제기된 문제를 과장하거나 약화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확히 평가하고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사업작풍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입니다.≫

≪우리당의 사업작풍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사업기풍입니다. ≫

그러면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사업기풍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 문제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노동계급의 당이 혁명적 입장을 고수하고 영도적 권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사업기풍을 세워야 모든 문제를 언제나 당적, 노동계급적 입장에서 보고 판단할 수 있고 노동계급의 계급적 요구와 혁명의 근본이익에 맞게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은 어떤 조건에서도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적, 노동계급적 입장에 서서 사소한 편견도 없이 공명정대하게 분석판단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민대중속에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서 자기의 영도적 권위를 확고히 보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사업기풍을 세우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일꾼들이 어떤 조건에서도 혁명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입니다. 혁명이 전진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예상치 않았던 정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정세속에서도 혁명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수령이 개척한 혁명의 길을 따라 일관하게 전진할 수 있고 혁명의 종국적인 승리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난관이 앞을 가로막고 투쟁조건과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혁명적 원칙에서 물러서기 시작하면 종당에는 혁명자체를 말아먹게 됩니다. 혁명적 원칙을 버리는 것은 기회주의의 본성입니다. 당적 노동계급적 원칙과 어긋나는 부정적 현상을 조금이라도 허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이 머리를 쳐들게 되고 다음에는 당이 병들게 되며 나중에는 사회주의 위업이 변색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지나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다가 자본주의의 진흙탕 속에 빠진 동유럽 나라들의 실태가 잘 보여 줍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맑스-레닌주의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하는 사조의 기회주의적 정체를 가려보지 못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지 못하다 나니 나중에는 수 십년 동안에 건설해 놓은 사회주의 전취물을 반동들에게 빼앗기는 비극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사업기풍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일꾼들이 절대로 편협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심사숙고하여 공명정대하고 노숙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편협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면 불필고 인민대중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고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일꾼들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업을 전개하는데서 매사에 신중해야 하며 특히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심사숙고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과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사업기풍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고 있습니다.

주체의 사상이론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해 더욱 심화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높이 받들어 모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인민적 사업작풍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완전하게 체현하신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열정과 기백을 지니고 계시는 위대한 영도자,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는 천만산악도 과감히 헤쳐나가시는 정의의 수호자 이십니다. 하기에 오늘 세계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실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최고조로 달아오른 ≪반미≫ 감정 전국 9개도시 동시 집회

한반도는 지금 ≪반미≫ 열풍, 단체동향및 전국상황

한반도가 ≪반미≫ 구호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부시대통령의 ≪악의축≫ 발언으로 촉발된 국민들의 반미여론은 오는 19일 방한을 앞두고 날이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다. 이번 ≪반미시위≫ 는 전통적 재야 반미단체뿐 아니라 시민 · 여성 · 종교단체까지 가세하고 있고, 주한미군주둔지 지역주민들까지 참여하고 있어 미국내 부시정권조차도 긴장감있게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학생들이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위에서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연일 기습시위를 벌이고 대학별 농성 및 거리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경찰 및 관계기관을 긴장시키고 있다.

실제로 전통적 ≪혈맹≫ 으로 인식돼 오던 미국에 대한 반감이 이번처럼 드센경우는 역사상 드문 경우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반미투쟁이 국민적인 ≪반미정서≫ 를 타고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도 쉽게 누그러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상황을 두고 ≪부시가 방한해 ≪악의축≫ 과 같은 대북 강경입장을 후퇴하지 않을 경우, 한국민의 반미저항은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가 부시의 ≪악의축≫ 발언에 대해 ≪찬성≫ 도 ≪반대≫ 도 못하고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진 것도 이런 국민적 반미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미감정,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지지 않는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반미≫ 감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더 악화될 소지가 크다≫ 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안보수호자이자 경제지원자로 인식된 미국이 이처럼 국내에서 부정적 이미지로 전환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전한다. 최근 불거진 용산미군기지 아파트건립 문제에서 시작해 거슬러 올라가면 전동록씨 감전사고, 한강 독극물 방출사건, 매향리 폭격장, 노근리 등 양민학살 문제 등의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반감과 거부감은 날이갈수록 축적돼 오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어 한반도 전쟁위기를 촉발시키는 ≪악의축≫ 발언은 국민들의 반미의식을 증폭시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외에도 지난 한국현대사에서 가까운 97년 ≪워싱턴 콘센서스≫ 에서 시작해 87년 6. 29 선언, 80년 광주항쟁 등 굵직한 정치적 격변기때마다 미국의 정치적 개입과 간섭이 당시 비밀문서들을 통해 공개되면서 미국에 대한 불신은 계속돼 왔다.

부시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연일 계속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들의 반미시위에 경찰은 바싹 긴장한 상태다. 특히 미국에서도 국내에서 고조되는 ≪반미≫ 시위를 감안, 경호 · 경비업무에 특별히 신경써줄 것을 우리정부측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상적인 국빈 1등급보다 더 강화해 물샐틈 없는 철통경비를 유지키로 하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반미단체의 동향과 테러 가능성에 대비, 감시와 정보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날짜	내용(서울서 진행되는 시위)	일시 및 장소
16일	1인 릴레이 시위 전국 동시다발 부시규탄 집회 서울 집회	미대사관 용산기지 전국 곳곳 2시 종묘 등
17일		
18일	1인 릴레이 시위 2002 한반도 평화선언대회 광화문열린시민 마당 진출 시국농성 기자회견 및 농성 부시방한 반대시민문화제(가)	미대사관, 용산기지 10시 명동 YMCA 11시 30분 농성장 저녁 농성장 부근
19일	1인 릴레이 시위 시국농성 및 대국민선전전 한일 공동선언기자회견(가) 종교인(조계사,성공회성당) 촛불행진(가) 그림자투쟁	미대사관, 용산기지 서울시내 오전, 농성장 앞 미정 부시를 따라서
20일	1인 릴레이 시위 시국농성 및 대국민선전전 부시방한 반대 범국민대회 대국민선전전	미대사관, 용산기지 서울시내 3시 종묘공원 전국 곳곳
21일	1인 릴레이 시위	미정

다음은 2월이후 진행된 부시방한과 관련 단체별, 지역별 동향이다.

▲ 민족민주운동단체

*9개 연대단체 소속 9백여 단체, 부시방한 저지 공동행동 (성명발표및 연일 집회 · 시위)

*참가연대단체 – 전국민중연대(준) / 6 · 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 /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 MD저지와평화실현공동대책위원회 /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준) /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 투자협정 · WTO반대국민행동.

▲ 시민단체

*6일 – 소파개정국민행동 등 9개 시민. 통일단체, 부시방한 반대표명

*8일 – 297개단체 소속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상임대표 송보경외 4인), 부시발언 우려표명한 ≪평화선언≫

*15일 – 여성계 지도자 150명, 부시 전쟁포기 촉구 ≪평화선언≫

▲ 종교단체

*7일 – 20여 불교단체, 부시대통령 방한 반대 시국선언

*8일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부시정권에 우려표명및 평화촉구

▲ 해외

*11일 –재미동포연합 서부연합회 등 10여개 재미단체, 부시에게 항의성명서 제출. 평화주의단체인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부시에게 평화의 편지 보내기 운동

▲ 대전지역

*30여 시민사회단체, 15– 20일까지 대전역에서 천막농성

*시군지역별 농민회, ≪현수막 걸기≫ 대전시내 연일 집회

*19–20일 서울 상경투쟁

▲ 인천지역

*30여 사회시민단체, GM규탄, 부평기지반환 부시방한반대

*16일 – 부시방한저지 반전반미 인천시민결의대회 – ≪평화선언≫ 발표

*19일 – 부시입국공항 투쟁 및 그림자 투쟁 진행예정

*19일 – 상경투쟁 예정

▲ 경기동부 · 남부

*15일 – 경기민중연대(준),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30여개단체 반미캠페인

*150여개 단체가 모여 경기지역 합동기자회견 및 캠페인

*1월 19일 – ≪용산미군기지 성남 이전저지와 우리땅되찾기 성남시민운동본부 발족

*16일 성남지역에서 경기도민결의대회

*18, 19, 20일 서울상경투쟁예정.

▲광주 · 전남지역

*7일 – 광주기독교연합회 성명 발표 ≪미국의 패권주의 반대≫.

*8일 – 민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 전남연합 등 19개 사회단체, 전남대 학생회관 공동기자회견 ≪부시방한 저지≫ 입장 발표.

*9일 화순군 농민회원 50여명 9일 화순군 농협 군 지부 앞에서 ≪부시 방한 반대 결의대회≫ –≪부시방안 결사반대≫ 요구

*14일 – 광주. 전남 원로 및 각계인사 100여명, 부시 방한, 미국의 대 이북 정책 등을 비판하는 ≪100인 선언≫

*15일 – 광주전남 지역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부시방한 반대 기자회견 및 집회

*16일 – 평화협정 · 내정간섭 · 경제침탈 부시방한저지 반미결의대회

*18일 – 광주역, 부시방한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개별인사 공동 기자회견/ ≪한반도 전쟁책동 · 내정간섭 · 경제침탈 부시 방한 저지를 위한 광주 · 전남 민중연대회의 천막 농성≫ 예정

*19일 – 부시방한반대 민족전대마라톤대회 진행예정

▲부산지역

*14일 – 부경총련 의장 단식 농성

*15일 – 전쟁 반대 한반도 평화 실현 대북강경 정책 철회! 부시 방한 반대를 위한 부산지역 원로 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

*16일 – 6. 15 공동선언 실천, 전쟁위협, 무기강매, 부시방한 반대를 위한 부산 시민대회

*18일 – 부시방한 반대를 위한 1인 시위 (통일연대 주최) 예정

*19일 – 화요집회(부시 방한반대 내용), 부시 방한 반대를 위한 촛불시위 예정

*20일 – 부시방한 반대를 위한 청년학생 거리 선전전 예정

▲ 대구지역

*16일 – 15개 시민사회단체들 부시방한 반대 결의대회

*미군기지 캠프워커 1인 릴레이 시위

*19일 – 대구지역 각계지도층인사 시국선언 경북대에서 오전

▲ 강원지역

*24개단체 공동 성명

*춘천시민연대와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등 강원도내 24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미국 부시행정부의 ≪악의 축≫ 망동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 채택

미국은 뼉쇠다

백기완 강연 -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노라

≪미국은 우리 민족의 동질성과 자주성의 새싹을 짜른 뼉쇠(나쁜 놈 중에서도 가장 나쁜 놈)이다.≫

15일 저녁 7시 통일문제연구소 주최로 대학로 흥사단 3층 강당에서 열린 공개특강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노라≫에서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미국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다.

백기완 소장은 최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부시 미 대통령의 언사와 미국의 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 ≪악의 축≫ : 진정한 ≪악의 축≫은 이북이 아니라 미국이다. 세계에 대해 나쁜 일만 일삼는 미국은 ≪거대한 악≫이자 ≪악의 제국≫이다.

▲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론≫ : 미국의 이북에 대한 선제공격은 단순한 이북만의 공격을 넘어 7천만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 ≪이북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라≫ : 핵, 탄도탄(미사일), 생화학무기를 이북이 갖고 있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 그러나 미국은 지구를 열 번은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다.

▲ ≪휴전선에 있는 이북의 군대를 후방으로 물러서게 하라≫ :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자체가 전쟁위험 요소이다. 이북과 대화를 하려면 미군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야 한다. 전제조건을 달고 대화하자는 것은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 ≪한미동맹≫ :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파기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으로 인해 우리 민족은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백기완 소장은 미국의 이 모든 말들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부시가 방한하는 까닭은 전쟁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현재 미국의 사회경제적 모순이 전쟁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은 경제후퇴 국면시 항시 전쟁을 확대하고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은 경제가 후퇴할 때마다 ▲1960년대 말 존슨이 베트남전을 확대했으며 ▲1980년대 중반 레이건은 구 소련과 무한정 군비경쟁을 획책했으며 ▲1990년대초 아버지 부시는 페만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기완 소장은 전쟁을 도모하려는 부시의 방한을 반대해야 하는데, 그 형식은 ≪방한반대≫이지만 그 내용은 ≪미제국주의 해체 요구≫라고 강하게 못박았다.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강연회는 노동자, 학생, 사회당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시종 열띤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주최측인 통일문제연구소는 이 강연회가 ≪부시의 전쟁도발 음모를 분쇄하고 남북 7천만 생명과 자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군산복합체제, 그 한 묶음인 미 금융제국주의를 해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계환 기자
통일뉴스 2002/02/16

부시방한 반대 서울지역 결의대회 열려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사흘 앞두고 16일 오후 4시 서울통일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투자협정 · 더블유티오반대국민행동이 공동개최한 ≪부시방한 저지를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가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묘공원에서 열렸다.

김규철 서울 통일연대 상임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쟁획책을 중지시키려면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같이 떨쳐 일어나 부시에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한다고 말하고 ≪부시는 전쟁을 불러올 10조원이나 되는 무기 판매를 강요하지 말아야≫하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상임의장은 ≪너희가 강요한 아이엠에프가 우리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의 세금은 혈세다. 모든 무기를 거두어 주한미군을 몽땅 데리고 아메리카로 가라≫는 말로 대회사를 마쳤다.

이종원 서울연합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천재 서울통일연대 공동대표는 첫 번째 정치연설을 통해 ≪미국 대통령이 온다면 당연히 환영해야 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사과해야 할 일들이 있다≫며 ≪미군정을 통한 분단 정책과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부시는 6. 15 남북공동선언과 북미공동코뮤니케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김종철 민주노동당 용산지구당 위원장은 ≪미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으로 이북의 무기수출액보다 450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이 땅과 전세계 모든 인류가 가장 혐오하는 혐오시설인 미군기지를 끝끝내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용산미군기지 반환하고 미군은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구호로 정치연설을 마쳤다.

마지막 정치연설에 나선 이종희 투자협정 더블유티오반대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한미투자협정을 통해 가스, 에너지, 통신 등은 물론 을사보호조약 때도 내주지 않았던 광산 채굴권을, 한일투자협정을 통해 철도를 내줬다≫고 비판하고 ≪결국 한국은 선진 제국주의의 시장이 될 것이고 제국주의는 과잉축적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전쟁준비를 위해 한국에 엠디(미사일방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결의대회에 앞서 오후 3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송현석 통일시대 애국청년회 회장의 사회로 사전집회가 열려 이천재 공동대표, 오인환 서울지역 청년단체협의회 실천단원, 한종희 국민대 총학생회장, 문재룡 범민련 서울시연합 부의장 등이 발언했다.

또한 서총련 소속 대학생들은 결의대회 전에 종묘공원 앞 인도에서 시민들에게 부시방한 반대를 홍보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을지로입구까지 행진을 벌이면서 시민들에게 부시방한 반대를 홍보했으며 간단한 정리집회를 갖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부시방한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열렸으나 예상보다는 참여인원이 저조했다는 평가이다.

김치관기자
통일뉴스 2002/02/16

부시의 연두교서와 ≪악의 축≫

4기 전학협(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이라크, 이란과 함께 이북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였다. 부시는 또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 그리고 ≪위협이 증폭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위기가 가까이 오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연두교시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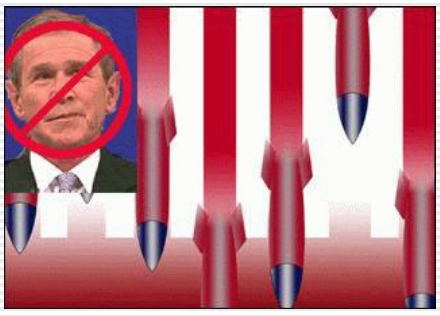
지난 해 9. 11테러 이후 미국은 대테러전쟁을 벌였다. 아프가니스탄을 초토화시킨 미국은 2002년을 ≪전쟁의 해≫ 로 선포하고 대테러전쟁을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려하고 있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은 아프가니스탄 다음의 전쟁 목표를 지칭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세계 평화를 목적한다고 하지만 결국 미국은 ≪전쟁을 세계화≫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세계적 ≪악의 근원≫ 미국.

미국이 지난 91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에 일방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이후 미국과 영국의 전투기 폭격으로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은 1천476명이었다.

민간인을 학살하고 세계적인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부시가 지목한 ≪악의 축≫을 구성하는 국가만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악의 근원은 ≪미사일 판매 세계 1위≫ 인 미국이다. 미국은 2001년 12월 지난 1972년 소련과 체결한 ≪에이비엠조약(방공망제한협정)≫ 탈퇴, 164



개국이 서명했고, 89개국에서 비준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의회 비준 거부(1999년), 또한 미국은 2001년 7월 생화학무기 조약의 강화를 위한 런던 회의를 중도 거부했다.

심지어 미국은 2001년 7월 불법소형무기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려는 유엔합의를 거부한 유일한 국가이며, 1997년 12월 122개국이 오타와에서 서명한 지뢰조약도 거부한 국가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자국의 이해를 위해 세계적 평화 조치를 무시하는 미국이 진정한 ≪악의 근원≫ 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국가가 악의 근원인가.

부시는 왜 한국에 오는가.

부시 미 대통령은 19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여 20일에는 공식환영식,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한편 미군부대를 방문하고 경의선 도라산역 방문, 리셉션, 만찬을 진행한 이후 21일 한국을 떠난다.

부시는 왜 한국을 방문하는가.

최근 언론 발표를 보면 부시 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이북에 관련한 논의를 할 것이며 한미동맹관계를 재확인, ≪글로벌파트너쉽≫ 을 다지는 한편 이북의 더블유엠디(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연초부터 ≪악의 축≫ 발언으로 세계를 위협한 부시의 방한 이면에는 미국의 다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부시는 최근 스크린쿼터를 비롯한 산적한 한. 미 통상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한미투자협정을 빨리 체결하기 위한 압박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또한 한국이 4조2천억원대의 한국차기전투기사업에 보잉사의 에프-15케이를 낙찰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산업체는 미공화당의 표밭이며 정치자금의 공급원인만큼 보잉사의 차세대 전투기사업 낙찰은 부시의 정치력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적 세계 패권주의는 군수자본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부시 정권에 들어 14%의 미국 국방비가 인상되었다. 기를 쓰고 적을 찾아내려는 미국은 세계 경찰을 자임하며 세계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자본위기의 탈출구로서 전쟁을 삼고 있는 미국은 이윤창출을 위한 전쟁을 불사하며 그 최고 통수권자인 부시는 ≪전쟁의 전도사≫ 에 불과하다.

진정한 ≪악의 근원≫ 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테러에 반대한다.

미국이 현재 진행하고있는 전세계적 전쟁의 추구는 군산복합체인 미국내 군수자본의 배를 불리는 한편 부시 자신의 정치력을 위해 전세계 인민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미국, 그리고 그 불량국가의 대통령인 부시는 테러리스트의 반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싶어하는 호전광이나 다름아니다.

전학협은 전세계 인민의 평화를 위협하는 진정한 ≪악의 근원≫ 부시의 방한을 강력히 반대한다.

부시방한시 한. 미 대조선정책 미봉에 그칠 것

한. 미 양국은 오는 19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때 대외적으로 대조선정책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미봉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15일 전망했다.

이 신문은 양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부시 대통령은 이북과 언제, 어디서든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며 이에 호응해 한국은 대(對)테러 전쟁에 대한 지지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무부 관리들은 최근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성공적인 것으로 비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외교적 언급≫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같은 양국의 ≪선언≫은 이북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에 관한 근본적인 논란을 미봉하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이북과 협상했던 전직 미국 관리들은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교착을 위한 처방일 뿐≫이라면서 ≪반면 이북은 어려운 협상 파트너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약속들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4년 제네바 북. 미 기본합의를 이끌어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대사는 ≪부시 행정부는 국내. 외적인 행태가 비난을 받을 만한 나라들과 협상하는데 있어 이성적으로나 본능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이북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여러 현안에 대해 이북의 항복을 받기 위해 만날 용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요구사항을 확고히 밝히는 것만이 한반도의 진정한 긴장완화에 희망을 제시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경숙특파원
연합뉴스 2002/02/15

이 총재 방미 관련 여야 ≪논평 전쟁≫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방미 기간 동안 부시 행정부의 ≪악의 축≫ 발언을 사전 조율했거나 양해했다는 승인했다는 내용의 외신(파이낸셜 타임스 ·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며칠째 ≪논평 전쟁≫을 벌이고 있다.

양 당은 급기야 15일에는 ≪8개항 공개질의≫와 ≪10개항 공개 질의≫ 등 상대당을 겨냥한 의혹 리스트를 발표하는 등 확전(擴戰)을 불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남경필 한나라당 대변인은 ≪≪퍼주기식 대북정책≫, ≪우왕좌왕식 대미정책≫에 대한 국민 비난이 고조되자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야당 총재를 음해하며 물타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며, ≪현 정권의 우왕좌왕식 외교정책에 대한 8개항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남 대변인은 이날 ≪8개항 공개 질의≫ 논평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무산 책임을 야당 총재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며 ≪이북의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이북 달래기에만 급급한 현 정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권이냐≫며 포문을 열었다.

한나라당의 논평이 발표되자, 민주당에서도 ≪한나라당에 대한 10개항 공개질의≫라는 반박 논평을 발표하는 ≪맞불작전≫을 폈다. 평소 간략한 논평을 써왔던 이낙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만큼은 이례적으로 A4용지 4쪽 분량의 ≪장문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10개항 공개 질의≫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이 총재가 동의하는지 여부만 밝히면 될 것을 그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다른 얘기만 한다≫며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다시 꺼내드는 정치적 자산의 빈곤, 정치적 상상력의 결핍, 천박함을 드러냈다≫고 맞받아쳤다.

또한 이 대변인은 ≪이 총재의 ≪악의 축≫ 지지 의혹은 외국 신문들에 의해 먼저 제기됐다≫며 ≪이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할 용의가 없느냐≫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북 대량살상무기 문제로 야기된 작금의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토록 이북과 미국에 요청하려는 국회 결의안의 조기 채택을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것은 혹시 이 총재의 방미 중 언동과 유관한 것은 아닌지 밝혀 달라≫며 ≪한나라당이 미국에 있는 이회창 총재 후원회 회원들을 동원해 미국 공화당 매파 의원들에게 대북 강경책을 주문하고 있다는 제보가 사실이냐≫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한기 기자
오마이뉴스 2002/02/15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에 대하여 (4)

≪9월테제≫에 대한 해석 -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2001년 10월 19일

차례

글을 시작하며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 글을 맺으며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자주적 평화통일은 연방제 통일을 뜻한다. 자주적 통일이 연방제적 성격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성격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며, 평화적 통일이 연방제적 성격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성격으로 될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하다. 한(조선)반도에서 실현될 통일의 성격은 철두철미하게 연방제적이다.

문제는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동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 동력은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형성된다.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형성된 각이한 동력들이 하나의 전선으로 총집결하면 그것이 민족통일전선이다. 위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하여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형성된 각이한 동력들이 하나의 전선으로 총집결한 것도 또한 민족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민족통일전선은 두 가지 성격을 지니게 된다. 하나는 전민족적 범위에서 형성된 조국통일운동의 각이한 동력들을 총집결시킨 전선의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전민족적 범위에서 형성된 반제자주화운동의 각이한 동력들을 총집결시킨 전선의 성격이다.

전민족적 범위의 조국통일역량이 총집결된 민족통일전선에는 그 전선을 움직여 가는 중심동력과 보조동력이 작용하게 된다. 민족통일전선의 중심동력은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역량이 결합된 동력이고, 보조동력은 남(한국)과 해외에 존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정치역량이 결집된 동력이다.

여기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은 민족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의 관계문제다. 민족민주전선도 넓은 의미에서 민족통일전선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제국주의세력에 의해서 분단되지 않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민족민주전선이자 곧 민족통일전선이다. 그러나 우리 한(조선)민족의 경우는 분단현실의 특수성 때문에 이 두 전선의 구분이 불가피하다.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전선으로 일치시킨 전통적인 이론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한(조선)민족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기 힘들다. 민족통일전선은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형성되는 전선이고, 민족민주전선은 남(한국) 지역의 한정된 범위에서 형성되는 전선이다. 민족통일전선의 동력은 전체 한(조선)민족에게서 나오는 데 비해, 민족민주전선의 동력은 남(한국) 민중에게서 나온다.

민족통일전선의 투쟁대상은 한(조선)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을 가로막음으로써 한(조선)민족의 자주성을 억누르고 있는 제국주의세력, 곧 아메리카 제국주의세력이다. 남(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은 민족통일전선에 포함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세력을 민족통일전선의 주된 투쟁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주된 투쟁대상으로 삼는 것은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이다.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당면한 투쟁과정에서는 제국주의세력과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분리시키면서 제국주의세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전략적 타격을 가하

➡

광고

PDF자료집

21세기 태양

노작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1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6.15공동선언
16 남북공동선언

한민전 중앙위
18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노동신문
20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해 나가자

통일애국의 영수
25 전민족대단합실현의 길에서
30 90년대통일에로
33 해외교포를 통일애국력량으로
37 통일애국의 구심점
41 저는 통 을 보았습니다

구국전선 /구국의 소리
44 김정일장군님은 통일의 태양
48 통일은 평양에서 온다
49 김정일영수와 통일강성대국
50 조국통일과 세계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전진의 6년
52 김정일영수와 조국통일
53 자주통일의 길에 쌓으신 빛나는 업적
54 온 겨레가 안겨살 품
55 2000년 통 실록
56 태양의 빛발따라 통일의 새 날을 열자

평양회담과 6.15공동선언
58 역사적인 평양회담
63 김정일총비서께 로씨야대통령이 친서
64 해외교포조직 및 해외동포들이 편지와 전문
65 김정일총비서 남조선 언론사대표단을 접견
66 김정일총비서께 비전향장기수들이 감사편지

조국통일의 구성

청년주체주의자대오
86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청년주체주의자들의 맹약

고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에 대해서는 견제하면서 전술적 타격을 가하는 투쟁이 요구된다. 집권세력이라고 하여 무조건 적대하지 말고 그 세력권안에서 개혁성과 민족성을 지니고 있는 구성부분은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으로부터 분리시켜 대응해야 하며 민족통일전선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확장하여 그 동력을 강화하고 주적에게 타격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항일무장투쟁 시기의 조선민족의 민족통일전선의 역사는 물론이고 모든 나라의 민족통일전선의 역사가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민족 내부의 적대관계를 잠시 뒤로 미루고 제국주의세력을 타도하는 투쟁에 집중해야 하며, 민족 내부의 반민주세력이라 할지라도 제국주의와 모순관계(비적대적 모순관계)에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제휴 · 공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가장 중대한 정치적 요구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였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6.15공동선언을 민족통일전선의 위대한 승리라고 칭송하고, 또한 그 선언을 민족통일전선이 실현할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준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6.15공동선언이 친미예속적 집권세력의 일부를 민족통일전선안으로 견인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족통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하여 형성되고 그 선언을 기치로 하여 한(조선)민족 전체를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로 전진시키는 자기의 성격을 확대시키고 있다. 민족통일전선의 조국통일지향적 성격이 6.15공동선언 이후에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반미자주화를 기치로 한(조선)민족 전체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민족통일전선의 또 다른 성격, 반제적 성격도 확대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민족통일전선과 달리 민족민주전선은 남(한국)이라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형성되어 민족해방의 과업과 민주주의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전선이므로 그 대상은 남(한국)을 지배 · 수탈하는 제국주의세력과 남(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이다.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은 민족민주전선의 동력에 포함될 수 없다. 민족민주전선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전략적 과업을 받아들이는 세력만을 자기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남(한국)에는 6.15공동선언을 지지 · 찬동하면서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전략적 과업을 회피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들은 민족민주전선의 동력이 될 수 없다.

민족통일전선은 사상과 이념의 차이, 계급적 처지와 생활권의 차이를 떠나 6.15공동선언을 지지 · 찬동하는 모든 민족성원들로부터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한 무한정한 투쟁동력을 공급받는다. 민족통일전선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시작하여 연방제 통일을 완수하는 전체 과정에서 부단히 심화 · 확대되어 간다. 민족통일전선의 조국통일지향적 성격이 심화 ·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그 전선의 반제적 성격도 심화 · 확대될 것이다. 민족통일전선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조국통일운동을 전진시키는 것은 곧 그 동일한 전선의 반제자주화운동을 전진시키는 것이며, 반제자주화운동이 전진되면 민족의 자주성이 완성될 것이다.

민족통일전선의 조국통일지향적 성격을 조직체로 실체화한 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결성될 민족통일기구다. 민족통일전선이 자기의 조국통일지향적 성격에 따라 수행해야 할 역사적 임무는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여 6.15공동선언에 천명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서 민족통일기구를 공고한 국가권력기구로 상승 · 발전시키어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민족통일전선이 자기의 반제적 성격에 따라 수행해야 할 역사적 임무에 관해서는 위에서 이미 기술한 바 있다. 민족통일기구에 관한 설명은 나의 논문 ≪조 · 미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에서 기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경로는 어떠한가?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것은 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되고 강화 · 확대되고 그에 따라 민족통일기구가 수립됨으로써 연방제 통일의 1단계, 곧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는 경로를 밟아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전민족적 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되고 강화 · 확대되면, 남(한국) 민족민주전선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자기의 투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민족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은 그 성격과 동력, 지위와 역할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지만, 그 두 전선을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까닭은 바로 그러한 상호연관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통일전선이 날로 강화 · 확대 · 발전하는 정세속에서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제압하고 근로대중의 사회 · 정치적 요구에 따라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 남(한국)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그 정부는 북(조선)의 정부와 함께 기존의 민족통일기구를 더욱 강화 · 확대 · 발전시켜 짧은 기간 안에 연방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민족의 자주성은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되며 자주적 평화통일의 과업은 통일된 자주강국, 연방국가의 건국으로 빛나게 완수될 것이다. 이것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는 대변혁의 경로다.

글을 맺으며

민족민주전선의 전략적 과업이 힘있게 수행되고 그 과업을 완수하는 최종지점으로 다가가는 전체 과정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민족사의 대변혁이 이루어지는 혁명적 과정이다. 또한 그 과정은 제국주의세력과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에게 짓밟혀왔던 남(한국)의 근로대중이 자기의 운명을 새로운 차원에서 개척하는 해방과 변혁의 과정이다. 사회적 집단이 자주성의 요구에 따라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 창조과정을 ≪혁명≫이라고 정의한다면 지금 민족민주전선은 그러한 혁명의 준비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살며 투쟁하고 있는 혁명의 준비기는 사회역사를 개조 · 변혁하는 주체의 역량이 장성되고 그 역량의 주동적 작용이 비상히 강화되는 시기다. 그러므로 혁명의 준비기에 민족민주전선의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선운동조직의 일꾼들은 그 과업을 수행하는 투쟁의 한 복판으로 자신의 삶을 온통 던져 넣는 전투적 행군길에 승리의 기치를 치켜들고 앞다투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전국연합 중앙상임위원회가 발표한 ≪9월테제≫는 그 전투적 행군의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적 실천의 작전도로 된다. ≪9월테제≫를 이루어내려는 열의에 불타고 있는 민족민주전선의 일꾼들은 그 작전도를 들고 남(한국) 전역을 누비며 대중투쟁과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장차 이 땅을 뒤덮을 승리의 서광은 그들의 혁명적 실천에서 비쳐오고 있다.

(끝)

조국통일3대헌장

연방국가창립방안(2)

주체사상 총서 5권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국가형태이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조건에서 사상이 통일을 이룩하기 전에 전민족적 이념에 의한 단합을 이룩하여야 하며 제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전에 민족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공명정대한 현실적 요구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우리 나라의 이러한 현실적 요구를 구현하고 있다. 연방국가방안에서의 통일정부는 북과 남의 지역정부, 지역자치제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구로서 전 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염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추진하는 사명을 수행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나라가 처한 구체적 환경도 충분히 고려한 국가형태이다. 우리 나라는 큰 나라들 사이에 놓여 있으며 군사전략상 견지에서 볼 때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국이 통일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이 영원히 둘로 갈라지고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지켜낼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이러한 국제적 환경의 요구를 반영하여 그 어떤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블록에도 가담하지 않는 평화애호적이며 자주적인 중립국가로 될 것이다.

연방국가창립방안의 현실성과 합리성, 공명정대성은 연방국가의 10대시정방침에서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10대시정방침은 연방국가의 본성과 사명에 맞게 대내외정책을 규정한 통일국가의 정치강령이다.

10대시정방침에는 무엇보다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자주성은 독립국가의 기본표징인 것만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온갖 형태의 외세의 간섭과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대내외활동에서 완전히 자주권을 행사하며 국가정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조선민족의 근본이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10대시정방침에는 또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10대시정방침에는 또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고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연결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과 나라의 과학기술, 민족민화예술, 민족교육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에서의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10대시정방침에는 이와 함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며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10대시정방침에는 또한 연방국가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위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어 있다. 10대시정방침은 끝으로 연방국가가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10대시정방침은 결국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은 철두철미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누구나 다 접수할 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이다. 주체의 조국통일이론이 밝혀주는 조국통일방침들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고 민족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할 강령적 지침으로 된다. (끝)